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2. 23.(금) 11:00 < 12.24.(토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23.(금)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 양정화 (044-203-42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웅수 (044-203-4224)

안전은 기업 생존과 미래 성장의 필수조건

- 산·학·연·관 맞손, 「제조안전 얼라이언스」 공식 출범 -

- 기술개발·인력양성·컨설팅 등 기업의 안전역량 전방위 지원 모색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2월 23일(금), **제조업의 안전역량 강화**와 **안전산업 생태계 조성**을 위해 **『제조안전 얼라이언스』** 출범식을 개최했다.

○ 이날 행사는 **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**을 비롯해 **철강·석유화학·조선·뿌리·산업단지** 등 **제조안전**을 위해 힘을 합친 **협·단체**와 **기업** 총 50여 개 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.

「제조안전 얼라이언스」 출범식 개요

- **일시·장소: '22.12.23.(금)**, 14:00~15:00, 롯데호텔(서울 중구)
- **참석: (정부)** 주영준 산업부 실장, **(간사기관)** 전윤종 산업기술평가원 원장, **(협·단체)**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, 김택수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, 송유종 석유화학협회 부회장,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, 김정환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**(기업)** 오경택 (주)성원 대표 등 약 50여 명
- **주요내용:** ①산업부 제조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홍보 동영상 발표, ②제조안전 선언문 공동 서명 ③업종별 안전역량 강화방안 모색 및 우수사례 공유

□ 그간 **ESG경영 확산**, **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**에 따라 **제조업의 안전관리**가 **기업경쟁력의 핵심가치**로 부상하였다. 그러나, 우리나라는 **작년 산업재해 사망자**가 근로자 **10만 명당 4.3명**으로 **OECD 38개국 중 34위**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.

○ **이번 얼라이언스**는 **업종별 협·단체**, **연구소**, **안전기술개발 공급·수요기업**과 **정부**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**제조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**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.

○ 향후 얼라이언스는 **업종별 안전기술개발 노력과 정보를 공유**하는 한편, 안전분야 **인력양성**, **컨설팅** 등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**지원방안**, **제도개선 과제**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주영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"**제조현장의 안전**은 **기업 단독 플레이**가 아닌 **근로자, 협·단체, 정부 모두가 하나되어 팀 플레이**를 펼쳐야만 가능하다"라고 강조했다.

○ "**근로자**는 **위험요인 발굴** 및 **안전규정 준수**에 노력하고, **기업과 협·단체**는 **안전투자 확대**와 **안전문화 확산**에 앞장서달라"면서, "**정부**도 **첨단안전 관리시스템 기술개발**을 적극 지원하겠다"고 말했다.

□ 참석자들은 **업종별 안전역량 강화방안**에 대해 논의하고, **제조안전 선언문**에 대한 공동 서명식도 진행하였다.

○ **①철강협회**는 정부지원을 통해 **순찰로봇**(현대제철 SPOT 外) 등을 중소·중견기업에도 보급·확산해 줄 것을 요청했고, **②조선해양플랜트협회**는 약 5천명 가량의 **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필요성**을 언급했다. **③석유화학협회**는 **안전관리자 교육** 및 **자격취득 지원**, **④생산기술연구원(뿌리센터)**은 주물·도금 등 **위험공정**을 **자동화·원격제어화**하는 **지능형 안전시스템** 확산을 강조했다. 아울러, **⑤산업단지공단**이 내년에 VR·AR기술을 활용한 **3D 안전체험관**을 설치하여 **현장감 있는 맞춤형 사고예방 교육**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었다.

○ 산업부는 올해 신규 추진 중인 **제조안전기술개발사업의 주요 내용**도 소개했고, 동 사업을 통해 확보할 안전 솔루션을 **내년 하반기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**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